6-Episode Seasonal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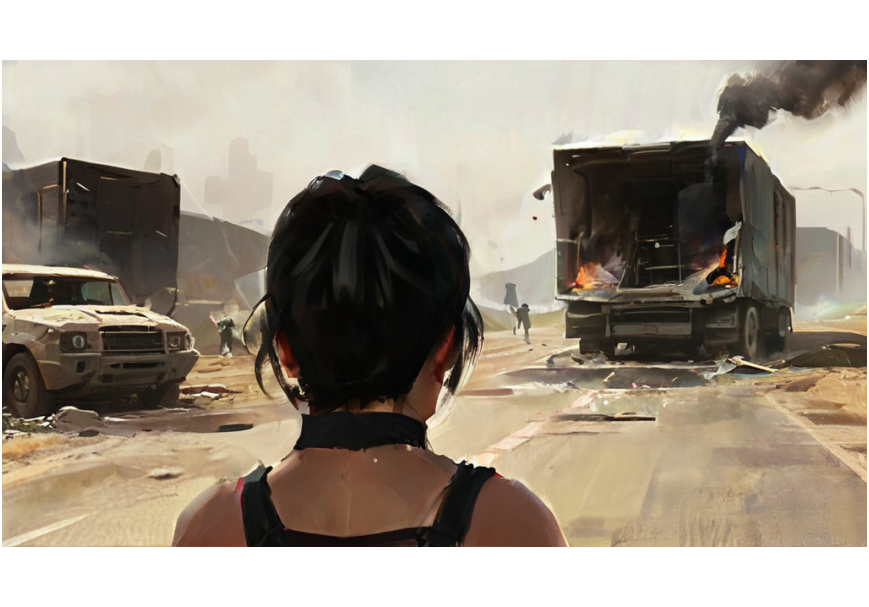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14

❖

수송차량이 폭발하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태웅이 어느새 의식을 되찾은 소연을 발견했다. 소연 또한 수송차량이 폭발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태웅이 소연에게 물었다.



"동녘이 라이딩 건을 너에게 쐈지? 동녘의 의식 느껴져?"
"아니…"
"아무리 라이딩을 했어도 원래 바디의 바이탈 사인이 꺼지면 어차피 의식도 죽어버리니까…."
"…"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을 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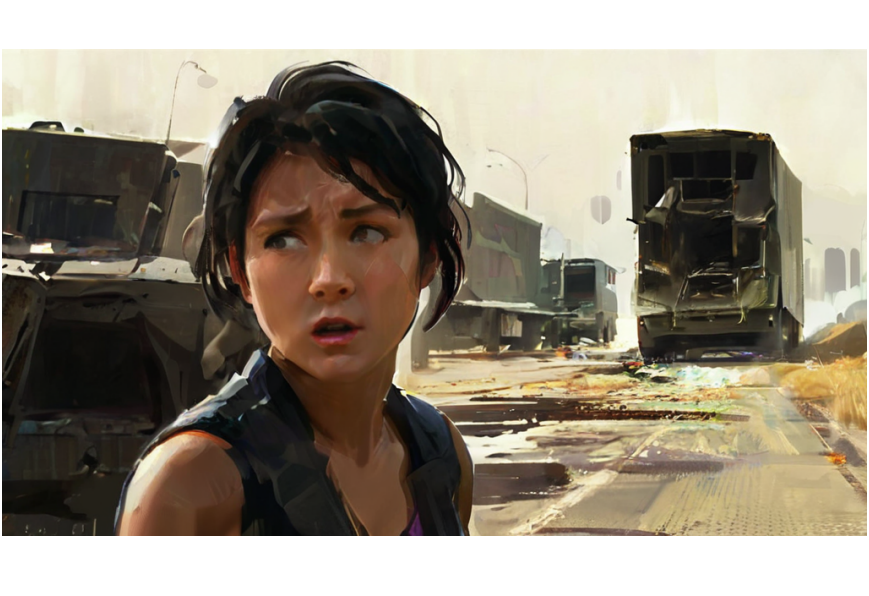
소연이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걔가 좋았어. 알고 싶지 않은 비밀을 알게 된 건 싫지만…"

태웅이 흐느끼는 소연을 감싸 안았다. 이때 소연의 귓가에 동녘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저기요! 분명히 제가 좋았다고 하셨죠? 저도 소연 씨가 처음부터 좋았어요! 원래 부부였다고까지는 생각 못했지만, 우리가 결혼하고 애 낳고 제사 받는 거 정도는 생각했거든요.'

소연이 화들짝 놀라 소리쳤다.



"뭐야? 너 살아 있어? 지금 내 몸에서 얘기하는 거야?"

태웅이 놀라 뒤로 물러났다.

'네, 맞아요! 일단 제 몸부터 찾아주세요! 아직 살아있나 봐요.'

소연이 급히 폭파된 차량으로 달려가 폭파된 차량의 잔해와 시체더미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태웅이 따라와서 소연을 거들었다.

"뭐래? 살아있는 거야?"

소연은 대답 대신 불에 탄 군인들의 시체 더미 사이에서, 타지 않은 채 누워 있는 동녘의 몸을 발견해 끌어냈다. 동녘의 심장에 귀를 대어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발견한 소연은 동녘의 심장이 뛰고 있으며 호흡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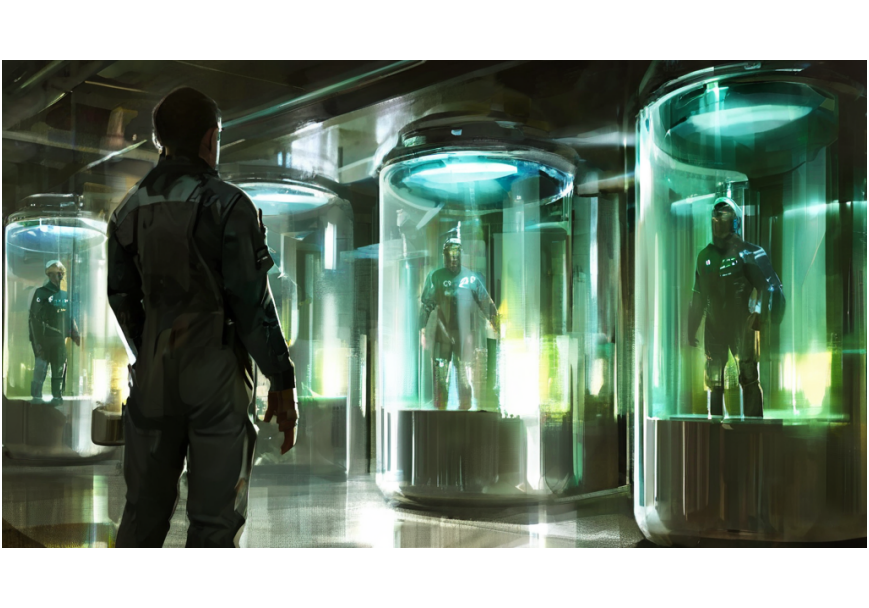
"바이탈 살아있어!"

"정말? 알았어. 지원을 부탁할게."

태웅이 뒤로 물러나 차량으로 달려가며 말했다.

'저기 근데 인공호흡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너 농담하는 거 보니까 안 해도 되겠다."
'하긴… 키스도 서로 느낄 수 있을 때 해야지. 좀 참아볼게요, 그럼.'
"근데 이거 네 몸이 아닌 데도 우리 의식이 공존하고 있는 거야?"
'글쎄요. 저도 라이더만 해봤지 라이딩을 하는 건 처음이라서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



오리엔티스 대원들이 각자 치료용 캡슐에 들어가 치료를 받는 가운데, 동녘도 의식을 잃은 채 치료용 캡슐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 소연도 캡슐에 들어가 신체 검사를 받는 중이었다.

태웅과 재호, 그리고 소동에 휘말리지 않아 다치지 않은 대원들이 소연의 의식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소연과 동녘의 의식 비율은 어떤 상태지?"
"지금 둘이 거의 동일하게 활성화 사애입니다."

재호의 물음에 태웅이 대답했다. 재호는 의식을 잃은 채 캡슐의 치료를 받고 있는 동녘을 보며 다시 물었다.

"동녘 바디의 바이탈 상태는?"
"지금 빠르게 회복세입니다. 오히려 다른 대원들보다 회복이 빨라요. 늦어도 24시간 안에는 의식을 트랜스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원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대원이 대답했다. 재호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엔지누스인가."
"네?"
"K-GENUS 신인류 말일세. 백호는 의식의 완벽한 이식을 넘어서, 엔지누스를 지향하고 있었거든. 태웅 너에게 실험했던 일들도 같은 맥락이었고 말이야."
"아, 네…."

태웅은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떠올리게 되어 떨떠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재호가 치료를 맡은 대원에게 물었다.

"백호의 기억은 더 떠오르는 건 없나?"
"아직은 동녘 상태입니다.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소연의 기억은?"

소연이 대답했다.

"저도 다른 기억이 떠오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행동력은 저보다 동녘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제 의지보다는 동녘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져요. 아! 손 좀 내려놔!"

소연은 자신의 손이 가슴을 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역정을 냈다.

'아니, 내가 일부러 만지는 게 아니고 가슴 쪽이 가려운 것 같아서 긁으려고요. 안 간지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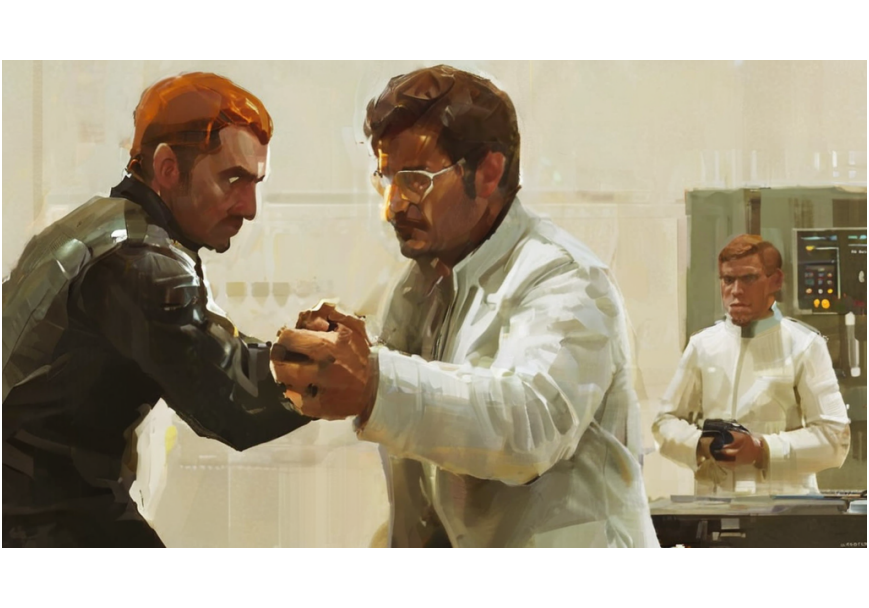
소연의 몸에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동녘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 스피커는 소연의 의식 안에 들어간 동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였다. 이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진 태웅이 말했다.

"너, 소연의 몸에 털끄 하나라도 문제 생기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리고 너 아버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어?'
"널 내 아버지라 인정한 적 없어. 그리고 내 아버지라면 더 죽이고 싶을지 몰라. 당장이라도 너의 몸을 파괴해버릴 수 있어."

태웅이 동녘의 캡슐 앞으로 다가가 플러그를 뽑을 기세로 잡으며 말했다. 놀란 동녘이 소연의 몸을 일으켰다.

'뭐하는 거야! 안 돼!'

케이블을 뽑으려는 태웅을 저지한 것은 재호였다.



"참아야 한다, 태웅아. 아직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이 많아."

태웅이 겨우 분을 삭히는 가운데, 스피커를 통해 동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근데요, 원장님. 제가 지금 몸에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참을 수 없는 느낌이고 배 아래 쪽이 움찔움찔거리는 데요….'
"그래? 무슨 일인지 바이탈 체크 좀 해봐."

대원이 갸우뚱하며 말했다.

"다른 변화는 없는데요?"

그러자 소연이 한심하단 표정으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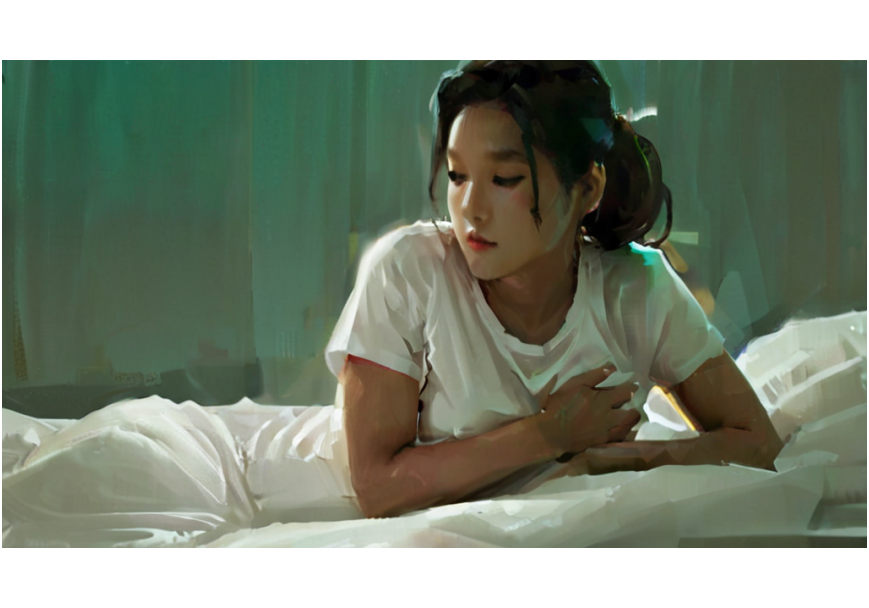
"야…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도 모르냐?"
"아, 지난 번엔 네가 그러더니 확실히 남자랑 여자가 다르긴 한가 보네. 큰 거야 작은 거야?"
"됐어.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게 해주세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일단 바이탈에 큰 문제가 없으니 검사는 여기까지만 하지. 동녘이 회복되는 대로 바로 트랜스퍼 준비만 하고."
"네 알겠습니다."

❖

소연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소연의 손이 자기 의지와 상관 없이 가슴을 주무르고만 있지 않았다면 더 일찍 잠에 들 수 있었을 것이다. 소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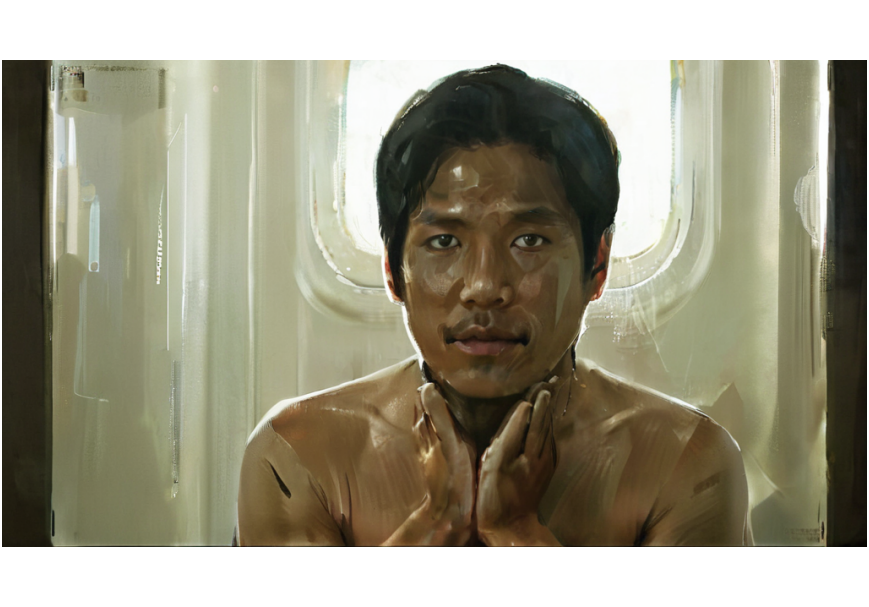


"그만 좀 만지고 자자…"

동녘의 대답이 들리지 않았다. 뭐야 이 녀석은, 자면서 계속 만지고 있던 거야? 소연은 가슴에서 손을 떼며 생각했다. 이때 갑자기 어떤 기억이 소연의 머릿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했다.

바닥과 부딪히면서 깨지는 소연의 두개골의 이미지가, 심하게 훼손되어 두개골 밖으로 드러난 뇌를 바라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복제된 유아 소연의 모습을 바라보는 소연의 시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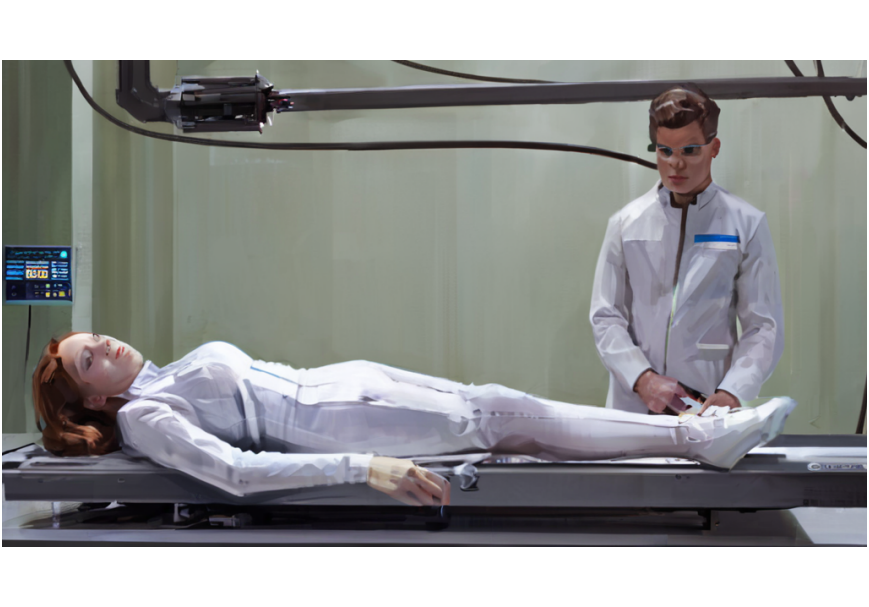
소연은 이 기억들이 백호의 것이라는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머릿속에 재생되는 이미지들 가운데,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자 백호의 모습이 보이는 기억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거울 너머로 한재호와 서창이 다가와 "성공했어! 축하해!"라 소리치는 모습에 음흉한 미소를 짓는 백호의 얼굴이.



갑작스러운 기억의 난입에 놀란 소연이 동녘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소연 속에 들어와 있는 동녘의 의식은 아무래도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소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걸쳐 입었다.

❖

소연은 온몸에 케이블을 단 채 검사대 위에 누워 있었다. 한재호 원장과 태웅 대장을 비롯한 오리엔티스의 대원들이 소연 주변에 모여 있었다. 화면에는 소연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본 백호의 기억들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어디까지 열린 상태지?"
"지금 측정되는 데이터로는 80퍼센트 이상 열린 것 같습니다."
"상대의 몸에 들어갔을 때 비밀이 열린다… 백호다운 생각이군."

동녘에게 봉인되어 있는 백호의 기억을 일깨우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다. 소연의 몸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기억이 해금되는 것. 태웅이 물었다.

"원장님, 그럼 지그 소연의 몸에 들어있는 의식은 백호일까요, 동녘일까요?"
"글쎄, 직접 물어보자고."

재호가 소연을 내려다 보며 말했다.

"지금 거기 있는 건 누구인가? 백호인가, 동녘인가?"

이 질문에 대답한 것은 동녘도, 백호도 아니었다. 소연이었다.

"아직 답이 없어요. 저도 의식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태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소연아, 너는 괜찮아?"
"글쎄, 좀 멍하긴 해. 꿈꾸는 느낌이야."

소연이 눈을 감았다. 태웅이 대원에게 확인했다.

"지금 소연의 의식 상태는 어떻지? 소연의 기억은 열리고 있나?"
"소연의 기억도 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의식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삐- 삐- 거리는 경고음이 울려퍼졌다.

"소연의 기억이 열리면서 의식이 20퍼센트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 상태입니다! 멜트다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른 동녘의 의식을 트랜스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놀란 태웅이 눈을 감고 있는 소연을 흔들어 깨웠다.

"소연아! 일어나! 소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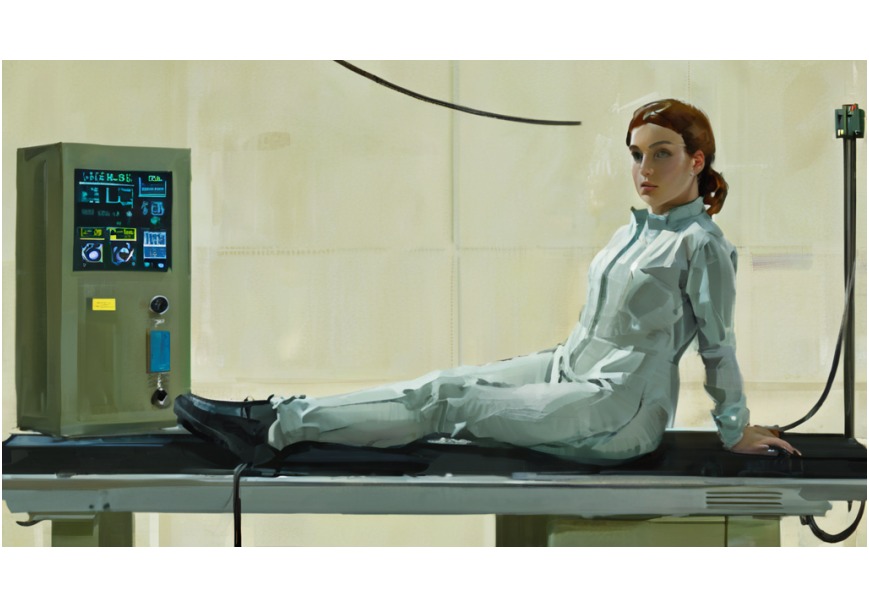
소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소연아! 엄마! 엄마!!"

그 순간, 소연의 눈이 뜨였다. 소연의 몸과 연결된 스피커에서 동녘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태웅아….'

하지만 평소 동녘의 목소리와는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놀란 태웅이 뒤로 물러났다. 소연이 검사대 위에 고쳐 앉아 고개를 돌려 한재호를 보며 말했다. 소연의 입은 굳게 닫힌 채, 스피커를 통해 말을 하는 것이었지만 말이다.



'재호, 오랜만일세. 자네도 늙었구만.'

재호가 이것이 백호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Continued to ep.15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